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기수¹⁾ · 주현옥²⁾

¹⁾동아대학교병원, ²⁾동아대학교 간호학과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Jeong, Ki Su¹⁾ · Ju, Hyeon Ok²⁾

¹⁾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²⁾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Methods:** Subjects were 123 male nursing junior and senior students in B city, U city, and GN area. Career types were classified into a hospital nurse and a community nurse. Subjects were asked about 29 items of nurse image and 31 items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χ^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percentage of career choice which subjects hoped when admitted into nursing universities consisted of hospital nurses of 77.2%, while the percentage changed to hospital nurses of 52.8% at the time of this survey. The nurse image represented as an influencing factor, and it was found that if nurse image score increased one unit, the hoping units of career type of hospital nurse increased 2.69 times. **Conclusi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to provide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information concerned to not only hospital nurses but also community nurses, and further studies on the positioning and expanding roles of community male nurses need to be conducted.

Key Words: Male, Nursing student, Career choice, Nurse, Imag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위상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적이었던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4

년제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전체 간호대학생 36,247명 중 5,228명으로 14.4%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8.8%와 비교하면 최근 4년 동안 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09, 2013). 남학생의 간호학과 진학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건강개념의 변화,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 직업의 안정성, 취업의 용이성, 높은 보수 및 승진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Cho, & Jeon, 2014; Marks & Bevan, 2013).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 경제 및 통신 등의 분야에

주요어: 남자, 간호대학생, 진로유형

Corresponding author: Ju, Hyeon Ok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602-714, Korea.
Tel: +82-51-240-2689, Fax: +82-51-240-2920, E-mail: enfanju@da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 This study wa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Received: Jun 29, 2015 / Revised: Aug 11, 2015 / Accepted: Aug 18, 2015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Marks & Bevan, 2013).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수준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Kim, Cho et al., 2014; Roth & Coleman, 2008). 미국의 몇몇 연구에서도 남자 간호사의 비율을 8% 내외로 보고하면서, 남자간호사와 남학생은 간호직이 전통적으로 여성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임상에서는 여성 환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주위사람들로부터 남자답지 못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등의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한다고 하였다(Marks & Bevan, 2013; Roth & Coleman, 2008). 간호교과과정에서는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훈련 교과목 부재, 간호학에서의 남자 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 여성 중심의 강의 및 또래 지지집단의 부재 등이 남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O'Lynn, 2004).

남자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을 더 낮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역할 수행이나 전망있는 직업으로서 사회적 지위, 존경 및 자율성의 이미지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Yang, 2003).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3학년이 1학년 보다 낮게 나타나(Ha, 2012),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이 입학시에 가졌던 이미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시작하고 여성 환자에 대한 간호역할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Lee, 2004; Roth & Coleman, 2008), 취업 전 대학에서부터 여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선배들로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간호사에 대한 미래를 듣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J. A., 2013).

실제 졸업한 남자간호사들은 취업하기 전의 기대와는 다르게 낮은 사회적 지위, 인력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무, 열악한 근로조건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여성 직업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등의 이유로 병원을 떠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Lee, 2004). Kim (2010)의 남자간호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간호사 중 이직에 대한 의향은 77%, 이직경험은 36.3%, 다른 직장을 알아본 경우는 42.9%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병원간호사 이직률 16.8% (Hospital Nurse Association, 201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외국의 몇몇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직 내에서의 가장 큰 장벽은 간호직이 여성직이라는 사회의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의 혼돈이라고 하였다(Mark & Bevan, 2013; Meadus & Twomey, 2011), 국내에서 남자 간호대학생과 남

자간호사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및 이직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남성들은 여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역할갈등과 혼란스러움을 나타내었다(Kim, H. S., 2013; Park, 2011). 남자간호사들은 조산사, 소아과 간호사 및 보건교사 등과 같이 너무 여성적으로 평가되는 역할보다는 성중립적인 전문가 역할을 선호한다고 하였다(Mark & Bevan, 2013).

남자 간호사가 지각하는 대부분의 장벽은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직은 병원간호사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까지 면허증을 취득한 남자간호사 6,202명 중 3,000여명은 병원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 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교사 등의 병원 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Hwang, 2014).

진로는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지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은 취업이 보장되는 전공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소질과 능력 및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Koo & Park, 2005). 간호직 내에서 남자간호사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변화 및 양성평등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남자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 성중립적 간호전문직 분야를 개발하고, 성역할 차이를 고려한 진로상담이 요구된다.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진로만족, 진로정체감 등이 있으며 Kim, J. H.(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의 영향요인 중의 하나가 실습만족이었고, Kwon과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에 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a (2012)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진로 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연구는 임상실습경험(Yang, 2003), 전공만족과 정체감(Kim, Ko, & Park, 2014; Lee, D. J., 2004), 및 학교적응 장애요인(Kim, Cho et al., 2014)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남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유형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을 조사하고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추후 양성평등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를 파악한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W시 및 K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남자 간호대학생이었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Odds Ratio=3.20, α probability=.05, power=.80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17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27명을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는 123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진로유형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을 병원간호사와 지역사회간호사로 구분하였고 입학 시와 현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교사, 간호직/보건직 공무원, 산업간호사, 119구급대원 및 교정직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 (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자질' 9문항, '역할' 7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구

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 (1984)이 개발한 도구를 Lee, Kim과 Kim (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즉,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B시, W시 및 K도에서 남학생이 재학 중인 15개 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요청하였고, 이 중 13개 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3개 대학의 남학생 대표를 연구보조자로 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유형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는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해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No: 2-1040709-AB-N-01-201404-HR-11-02).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자발성과 익명성, 자료의 비밀보장, 연구 철회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3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는 3학년이 71.5%, 4학년이 28.5%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47.2%, 없는 경우는 52.8%였고, 학교성적은 ‘중’이라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7.7%였으며 ‘상’은 28.5%, ‘하’는 13.8%였다. 임상실습기간은 4~8주가 38.2%로 가장 많았고 17~24주가 34.2%, 9~16주가 20.3%, 25주 이상이 7.3%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이 42.3%, ‘좋음’이 43.9%, ‘보통’이 13.8%였고, 대인관계는 ‘매우 좋음’이 24.4%, ‘좋음’이 50.4%, ‘보통’이 25.2%였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적성/흥미가 35.8%로 가장 높았고 지인권유가 27.6%, 취업이 21.1%, 성적이 8.1%, 기타가 7.3%순이었고, 기타에는 선교와 회소성 등이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생활정도는 ‘상/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6%, ‘하’가 24.4%였다.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학과수업이 46.3%로 가장 높았고 여학우와의 관계가 26%, 임상실습이 11.4%, 기타가 16.3%였고, 기타에는 주위시선, 취업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2. 대상자의 진로유형

대상자의 입학 시 진로유형과 현재진로유형은 다음과 같다(Table 2). 입학 시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가 77.2%, 지역사회간호사가 22.8%였고, 현재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가 52.8%, 지역사회간호사가 47.2%였다. 진로가 변경된 이유로는 ‘임상실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7.5%, ‘다양한 간호진로정보를 알게 됨’이 25.0%, 무응답이 17.5%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rade	3rd	88 (71.5)
	4th	35 (28.5)
Religion	Yes	58 (47.2)
	No	65 (52.8)
Grade ranking	High	35 (28.5)
	Middle	71 (57.7)
	Low	17 (13.8)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14.53±8.44
	4~8	47 (38.2)
	9~16	25 (20.3)
	17~24	42 (34.2)
	≥25	9 (7.3)
Health status	Very healthy	52 (42.3)
	Healthy	54 (43.9)
	Moderate	17 (1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0 (24.4)
	Moderate	62 (50.4)
	Bad	31 (25.2)
Admission motives	Aptitudes/interest	44 (35.8)
	Recommendation	34 (27.6)
	Job	26 (21.1)
	High school grades	10 (8.1)
	Others	9 (7.3)
Perceived economic status	Good/fair	93 (75.6)
	Poor	30 (24.4)
Difficulties in college life	Major classes	57 (46.3)
	Relationship with female schoolmate	32 (26.0)
	Clinical practice	14 (11.4)
	Others	20 (16.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은 다음과 같다(Table 3).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뿐이었고, 그 외 학년, 종교, 성적, 임상실습기간, 대인관계, 입학동기, 경제상태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진로유형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63.5%가 병원간호사를 선택하였고, 36.5%는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하였다. 반면,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29.4%가 병원간호사, 70.6%가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하였다($\chi^2=6.27, p=.043$).

Table 2. Career Choice of Subjec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areer choice in admission	Hospital nurse	95 (77.2)
	Community nurse	28 (22.8)
Current career choice	Hospital nurse	65 (52.8)
	Community nurse	58 (47.2)
Reasons for career change (n=40)	Negative perception of hospital nurse after clinical practice	23 (57.5)
	Knowing a variety of nursing career	10 (25.0)
	No response	7 (17.5)

Table 3. Current Career Cho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urse Image and Clinical Practice

(N=123)

Variables	Categories	Current career choice			χ^2 or t	p
		Total	Hospital nurse (n=65)	Community nurse (n=58)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Health status	Very healthy	52 (42.3)	33 (63.5)	19 (36.5)	6.27	.043
	Healthy	54 (43.9)	27 (50.0)	27 (50.0)		
	Moderate	17 (13.8)	5 (29.4)	12 (70.6)		
Nurse image	Qualification	3.96±0.61	4.10±0.57	3.79±0.62	2.90	.004
	Role	3.54±0.60	3.63±0.56	3.44±0.62	1.76	.081
	Social participation	3.84±0.64	3.98±0.54	3.67±0.70	2.74	.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3±0.63	3.98±0.59	3.66±0.63	2.88	.005
	Total	3.79±0.56	3.92±0.50	3.64±0.58	2.89	.005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ubject	3.67±0.87	3.77±0.81	3.56±0.92	1.36	.177
	Content	2.99±0.71	3.08±0.69	2.88±0.73	1.52	.131
	Guidance	3.41±0.74	3.52±0.61	3.30±0.86	1.61	.110
	Environment	3.64±0.67	3.73±0.68	3.55±0.66	1.45	.149
	Time	3.65±0.84	3.66±0.91	3.64±0.77	0.15	.877
	Evaluation	3.48±0.91	3.61±0.88	3.34±0.94	1.62	.107
	Total	3.47±0.63	3.56±0.60	3.38±0.66	1.60	.112

간호사 이미지점수와 진로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병원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한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3.92±0.50점)가 지역사회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한 집단의 점수(3.64±0.5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9, p=.005). 하위영역인 ‘자질’, ‘사회참여’ 및 ‘대인관계’ 등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역할’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진로유형 중 병원간호사를 선택한

경우를 1,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한 경우를 0으로 코드화하고, 차이검정에서 p가 .10 미만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의 어려움,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등 총 5개의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포함하였다. Stepwise 변수 선택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의 점수가 1단위 증가하면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OR=2.69; 95% CI: 1.32~5.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Characteristics	B	SE	Wald	p	OR	95% CI
Nurse image	0.99	0.36	7.47	.006	2.69	1.32~5.49

논 의

최근 남자 간호대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졸업 후 진로유형이 병원간호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간호사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남자 간호대학생이 희망하는 현재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인 경우가 52.8%, 지역사회간호사인 경우가 47.2%로 비슷하게 파악되었다. 여학생이 91.1%를 차지하는 연구(Kwon, Bang, & Yu, 2012)에서 졸업 후 희망진로가 병원취업이라 답한 학생 수가 89.3%인 것과 비교하면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병원간호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았고 지역사회 간호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지역사회간호사에 대한 진로교육과 실제 졸업 후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추후 남자간호사의 지역사회간호사로서 자리매김과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입학 시와 현재의 진로유형이 변화된 경우가 3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96.4%를 차지하는 Bang 등(2009)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진로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진로변화에 대한 이유로는 ‘임상실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간호진로정보를 알게 됨’이 그 다음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에서 지역사회간호사로의 진로변화는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으며, 간호사 이미지 점수 1단위 증가 시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 증가하였다. Lee (201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나 사회전반적인 인식,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만난 간호사의 모습으로 형성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임상실습 현장에서 직접 만난 간호사의 모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고, Kim과 Kang (2004)은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 모델은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 중 역할모델

을 발견했을 때 고무되고, 간호업무에 있어서는 비교적 덜 여성적인 분야인 정신과나 중환자실 등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Roth & Coleman, 2008).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을 고려할 때, 병원간호사를 선택한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은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역할모델의 간호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볼 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남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에서 성공적인 역할모델이 되는 남자간호사와의 멘토링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연구된 Park과 Park (2014)의 보고에 의하면, 간호사는 회색적이고 봉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직업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의사의 보조자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상호 협조하여 일을 하는 타 관련부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나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Roth & Coleman, 2008),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성 고정관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였다(Karabacak, Uslusoy, Alpar, & Bahçecik, 2012).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는 남을 지원하고 위로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성향을 가진 여성에 비해, 경쟁을 선호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주도적 영향력을 지위의 기준으로 삼는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된다(Huh, 2007; Mark & Bevan, 2013). 즉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유형 중 병원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문간호사들의 병원 내 역할 확대와 병원의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 간호협회 차원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간호교육 제공자들의 올바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가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간호사 이미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임상실습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만 나타난 것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개발할 것을 제언하며, 남

자 간호사들의 진로유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향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은 입학 시에는 병원간호사가 77%였으나 3, 4학년에서는 52.8%로 감소하였다.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사 이미지였고, 간호사 이미지 점수 1단위 증가 시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 증가하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병원 내에서 남자간호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더불어 남자간호사의 간호직 밖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간호사로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

REFERENCES

- Bang, K. S., Jun, M. H., Kim, H. S., Son, H. M., Kang, J. H., Yu, S. J., et al. (2009).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22-31.
- Cho, K. J., & Kang, H. S.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 Ha, J. Y. (2012). Image of nurses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Nursing Science, 24*(2), 23-30.
-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Feb). *Survey on disposition of hospital nursing staffs*. Retrieved June 27, 2014, from <http://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 Huh, J. (2007). *Comparison on leadership between male and female: Based on the directors of central gover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Hwang, E. S. (2014, April, 21). Mr. Nightingale!. Weekly Chosun, archived at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03100005.html>
- Jang, S. H. (1998). *Survey on nurse's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arabacak, Ü., Uslusoy, E., Alpar, Ş. E., & Bahçecik, N. (2012). Image of nursing held by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8*(6), 537-544. <http://dx.doi.org/10.1111/ijn.12008>
- Kim, H. J. (2010). *Job stress and satisfaction among male nurses in Daegu*.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im, H. S. (2013). *The job changing experience of a male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A. (2013).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339-349.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4.339>
- Kim, M. A., Ko, S. H., & Park, E. (2014).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23-233.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23>
- Kim, M., Cho, S., & Jeon G. S. (2014).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3), 109-119.
- Kim, W. O., & Kang, H. S. (2004).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0*(1), 68-74.
- Koo, H. Y., & Park, H. S. (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373-385.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09, 2013). *Statistics for University*. Retrieved June 30, 2014, from <http://kess.chedi.re.kr/index>
- Kwon, K. M., & Choi, E. H.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19-28.
- Kwon, M. K., Bang, K. S., & Yu, J. Y. (2012). Role expect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recognized by elementary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456-464.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456>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H. R., Choi, K. O., Ko, J. E., Hong, M. R., Kim, S. Y., & Shin, H. S. (1992). Survey on nurse's imag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of Kyung Hee University, 15*, 45-65.
- Lee, J. Y. (2011).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HVEA, 12*(3-4), 213-224.
-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 Lee, S. Y. (2004).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of turnover of male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Marks, S. A., & Bevan, J. L. (2013). Men in nursing: Historical ca-

- reer perspectives. In Coleman, C. L. (Ed), *Man Up! A practical guide for men in nursing* (pp. 51-64). Indianapolis, IN: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 Meadus, R. J., & Twomey, J. C. (2011).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Nursing Forum*, 46(4), 269-279. <http://dx.doi.org/10.1111/j.1744-6198.2011.00239.x>
- O'Lynn, C. E.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 Park, I. S. (2011).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1(2), 55-64.
- Park, S. J., & Park, B. J. (2014).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96-370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96>
- Roth, J. E., & Coleman, C. L. (2008). Perceived and real barriers for men entering nursing: Implications for gender diversity.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3), 148-152.
- Yang, J. J.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64-72.